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양상과 유형 파악을 위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송민경

(성균관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 파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인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를 목적으로 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기초로 추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과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문항의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해 학교교사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문항을 갖고 수도권 소재 초·중·고생(N=1,822)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된 요인구조의 타당화를 위해 별도로 수집된 수도권 중학생 표본(N=333)을 대상으로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타당화 표본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를 바탕으로 분류된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현장에서 학생들의 실제 역할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예측타당도를 점검하였다.

주제어: 권력관계, 학교폭력 참여 역할, 권력장악가능성, 권력장악욕구, 척도의 타당화

1. 서론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매스컴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학성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정부에서는 2012년

⁺ 주저자 myum@skku.edu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2103년에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었다. 그 이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각종 학교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및 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꾸준하고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내 청소년들 사이의 학교폭력은 오래된 현상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집단 메커니즘과 관련 있는 또래들의 행동과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Olweus and Limber, 2010). 학교폭력은 평소의 교우관계, 계급의 존재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 기제(mechanisms)를 기반으로 발생한다(송민경, 2009; 엄명용·송민경, 2011).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귀족과 천민이 존재하는 계급사회로 인식하고 있고(경향신문, 2009년)¹⁾,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빵셔틀, 와이파이어셔틀²⁾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목적이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내 권력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제압할 만한 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권력관계 맥락 속에서 강자인 학생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추종 세력을 관리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을 견제하며, 교사와의 관계와 약자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김병찬, 2013).

사실상 학교는 권력이 작동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그 안에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의 서열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를 인지한다(송민경, 2009). 따라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학생들은 힘이 센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암묵적인 규율 등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아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가해자’보다 더 크고, 강한 아이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학생들은 말한다(Guerra et al., 2011). 또한 권력을 가진 학생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송민경, 2009) 상대방을 지배하려 한다. 권력의 이점을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학생에게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심심해서 하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학년을 초월하여 학교폭력의 중요한 동기로 ‘재미’ 혹은 ‘오락’이라는 요소가 등장하는 것(Guerra et al., 2011)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기제인 학교 내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학교폭력 연구들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예측 기준을 주로 학생 개인 요소나(Duncan, 1999; Olweus, 1993) 학생 가족 상황 요소들(Nansel et al., 2001)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피·가해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에서는 학교폭력의

- 1) 학교에는 싸움 잘하는 1진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공부 잘 하고 돈 많은 양민, 공부도 못하고 소심해서 빵셔틀이 되는 천민이라는 세 가지 계급이 있다고 한다(한국일보, 2011).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학생간의 권력을 구분짓는 귀족, 양민, 천민 등의 계급 존재여부에 대해 15.2%의 학생들이 ‘계급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37.5%의 학생들이 ‘모르겠다’로 응답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 2) 빵셔틀은 중·고등학교에서 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는 행위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고, 와이파이 셔틀이란 일진들에게 무선 와이파이 인터넷을 제공하는 아이들을 의미한다.

가해자 및 피해자 등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적응 유연성 등을 알아보는 척도나 다중지능검사 등이 활용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 내에서 고려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대균, 2013; 김병찬, 2013; Horton, 2011). Horton(2011)은 학교폭력 현상을 단지 공격적인 개인들에 의한 부정적인 행동들의 연속으로 보는 대신 권력관계의 영향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학교 내 학생들이 그들의 권력관계 안에서 어떠한 유형에 속하며, 그 유형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그리고 사후대처가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 및 타당화된 척도가 없다. 엄명용·송민경(2011)의 연구 과정에서 권력장악가능성 및 욕구가 편의적으로 측정된 바 있으나 척도의 구성타당도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었다. 학교폭력 현장에서 학생들이 각자 어떤 역할(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사이의 전형적인 관계 및 관계 내 반응 양식, 그리고 신체적인 강함 혹은 약함 등을 환경적인 요인들과 결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Olweus and Limber, 2010; Guerra et al., 2011). 본 연구는 엄명용·송민경(2011)의 연구에서 편의적으로 사용되었던 척도 문항들 외에 추가적인 문항들을 발굴하여 최종적인 척도를 구성한 후 그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척도 예비 문항의 추출, 문항 분석을 통한 최종 문항 선정, 최종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등이 이뤄졌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표준화, 타당화를 거친 척도를 활용하면 학교 내 학생들이 권력관계 안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학교폭력 발생 시에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은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2. 개념적 틀

본 연구에서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은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그 권력관계 안에서 학생들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그 유형들 간의 역동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평소에 학생 내 학생들은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권력관계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자신들 사이에 형성된 권력관계를 매우 선명히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욕구'는 다르며, 그것의 수와 양 또한 다르다(송민경, 2009). 권력의 속성과 관련하여 Sijtsema 외(2009)는 '권력자원'과 '권력의지'라는 두 가지 차원의 권력요소를 제시했다. 권력자원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을, 권력의지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이것을 학교집단 내 권력의 속성에 적용할 경우 권력자원은 '권력장악가능성', 권력의지는 '권력장악욕구'로 대체될 수 있다(송민경, 2009; 엄명용·송민경, 2011). '권력장악가능성'은 권력을 뒷받침하는 자원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권력장악욕구'는 권력자원의 소유 여부를 떠나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욕구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송민경, 200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송민경, 2009; 엄명용·송

민경, 2011)에 기초하여 권력관계를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의 두 가지 차원 간 역동성으로 파악하고자 하여 그 두 가지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척도를 제시하고자 했다.

1) 권력장악가능성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수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 양상을 만들어 낸다(서용석, 1995). 권력자의 권력과 권력구조는 권력자원을 획득하는 방법과 이것을 생산·재생산하는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권력자는 권력자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권력자로 부상할 수 없다(강희경·민경희, 1998). 학교폭력 현장에서 권력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의해 어떤 점에서 더 약하거나 결핍되었다고 인식된 다른 학생에게 남용되는 개인의 능력 또는 자원으로 개념화된다(Walton, 2005). 학생들은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생이 속한 가정의 특성,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권력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귀엽거나, 경제력을 비롯한 다양한 힘을 가진 부모, 평판이 좋은 형이나 언니,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친구와 기타 집단이나, 폭력조직 등이 뒤에 있을 때 학생은 상대적으로 큰 권력자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Guerra et al., 2011). 또 싸움을 잘 하는 것(Klein, 2006), 높은 자신감·자기주장·언어적 재주·사회적 조종 기술(Horton, 2011), 리더십의 질과 역량·인기·신체적 매력·멋진 옷을 입는 것·좋은 운동 능력(Vaillancourt et al., 2003), 방승부나 동아리 등 특정 집단에 속함·교사의 신뢰·높은 학력·선배들과의 관계·경제적 여건·외모(김병찬, 2013), 예쁜 얼굴·비싼 옷 입기·선배 알기·공부를 잘 하는 것·담임교사와 친한 것(한영선, 2012), 친구지지·교사지지(김순혜, 2012) 등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성들로 작용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아이들보다 약하고, 소심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고, 낮은 자존중감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신을 뒤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가족, 형제, 집단 등이 없을 때 그 학생의 권력자원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들과 다르거나 눈에 띄는 행동(짜증나는 행동, 바보 같은 행동, 교사와의 지나친 밀착 행동, 교실에서 너무 바른 대답을 많이 하는 행동, 과시적인 행동 등)을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권력 기반이 약한 것으로 인식된다(Guerra et al., 2011).

학교폭력 현장의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들의 개념은 French and Raven(1959)이 제시한 권력 기반들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의 기반으로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 합법적 권력, 참조적 권력, 전문적 권력 등을 제시했는데 이 다섯 가지의 권력 기반 중 학교폭력 현장의 학생 집단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것은 참조적 권력(referent power), 보상적 권력(reward power), 강제적 권력(coercive power)이다. 첫째, 참조적 권력은 이른바 '카리스마'와 비슷한 것으로 집단 구성원들 간 관계에서 중심에 서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특성에 기반을 두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고, 존경을 받으며 따르는 사람들의 판단에 참조가 된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 내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참조적 권력을 가진 어떤 학생과 함께 어울리는 학생은 그 사실

만으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거나 힘을 얻을 수 있다(송민경, 2009). 둘째,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 또는 바람직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다. 즉 정적·부적 강화물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상적 강화물을 조정·통제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교환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상적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따라 줄 경우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B라는 힘 있는 학생과 어울릴 경우 B가 A를 다른 학생들의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하고, A가 그것을 믿고 B와 어울리게 될 경우 B는 A에 대해 보상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강압적 권력은 특정인의 요청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나 육체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형성된 권력이다. 다른 학생을 그 학생의 뜻에 반하여 복종시키거나 지배하기 위해 그 학생에게 모욕이나 창피를 주고,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현장에서 '권력 장악가능성'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어떤 학생이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즉 권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자원들로 정의될 수 있다(엄명용·송민경, 2011). 이 자원들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데 앞서 살펴본 참조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등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권력장악욕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힘을 행사하길 원한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경우 충동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피해자에 대해 거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김길임·심희옥, 2002). 이러한 욕구는 권력, 물질적 이득, 재미, 감정 배출의 욕구, 패거리(gang) 소속감, 안정과 정체성에 대한 욕구 등으로 인해 강화된다(Lam and Liu, 2007).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동기를 '권력욕구'라 하는데 권력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주도하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얻으려고 애쓰며, 경쟁적이고 지위지향적인 상황을 선호한다(McClelland,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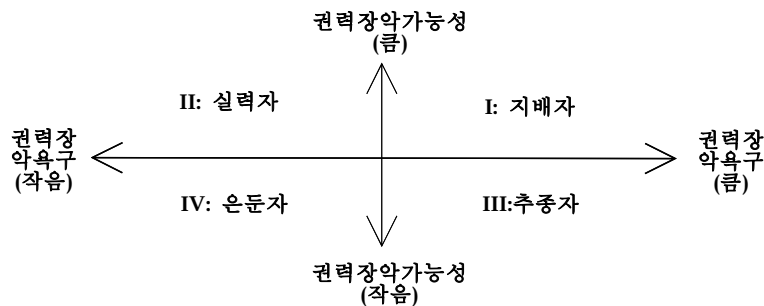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집단 내 권력은 한정되어 있고 우열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송민경, 2009). 학교 내 학생들 간의 심리적, 신체적 힘의 불균형 현상은 항상 존재하기에 우세한 힘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동기의 연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타인에 대한 지배는 경쟁적 환경에서 개인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가 되며, 초기 아동들은 자신의 사회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종 타인을 희생시키고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기도 한다. 학교 내 동료와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권력 욕구를 드러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자부심과 이점, 주위의 자극이나 필요성 때문에 나중에 이를 드러내는 학생들도 있다. 간혹 권력 욕구를 거의 보이지 않는 학생도 있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또는 작게 표현될 뿐, 일반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송민경, 2009). 일반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장 많이 갈망하는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스스로 권력 장악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지도자

나 집단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안정효, 2003).

이렇게 한정적이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학교폭력 현장에서 나타날 때, 가해자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가해행동을 통해 자기존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도 한다(엄명용·송민경, 2011). 실제로 가해자들은 정상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Guerra et al., 2011). 학교폭력 현장에서 권력욕구를 가진 학생들은 비록 자신에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자원이 빈약하더라도 권력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을 부러워하거나 권력이 있는 아이와 함께 어울림으로써 권력 욕구를 채우기도 한다(송민경, 2009; 엄명용·송민경, 2011). 정리하면, 학교폭력 현장에서, ‘권력장악욕구’는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3)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본 연구에서 권력관계의 유형화는 송민경(2009)과 엄명용·송민경(2011)의 연구에서 분류된 것에 기초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권력자원의 유무 또는 많고 적음에 따라 권력장악가능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권력자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의 크고 작음에 따라 권력장악욕구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라는 두 차원을 각각 x 축과 y 축으로 하여 교차시키면 네 가지의 권력 유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1>과 같이 분류되고 명명될 수 있다.



- ‘지배자’(I): 권력장악가능성이 크고, 권력장악욕구도 큰 사람
- ‘실력자’(II): 권력장악가능성은 크지만, 권력장악욕구가 작은 사람
- ‘추종자’(III): 권력장악가능성은 작은데, 권력장악욕구가 큰 사람
- ‘은둔자’(IV): 권력장악가능성도 작고, 권력장악욕구도 작은 사람

<그림 1> 권력관계 유형화(출처 : 송민경, 2009)

위의 기준을 통해서 분류된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간 관계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Salmivalli 외(1996)가 제시한 여섯 가지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3)과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 간 관계를 살펴본 엄명용·송민경(2011)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엄명용·

송민경(2011)의 연구에서 지배자(I) 유형의 학생은 권력장악가능성이 많고, 권력장악욕구도 높아 권력관계 내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유형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학교폭력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가해자가 되고, 도와주거나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면 강화자나 조력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력자(Ⅱ) 유형의 학생들은 권력장악가능성은 큰 반면 권력장악욕구가 작아 학교폭력 현장에서 방어자 역할을 할 것이라 추정되었지만, 실제 실력자 유형의 아이들이 방어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명용·송민경, 2011). 추종자(Ⅲ) 유형의 학생은 권력장악가능성이 낮지만, 높은 권력장악욕구를 갖고 있어 권력의 언저리에 있다가 피해자나 방관자가 되며, 은둔자(Ⅳ) 유형의 학생은 피해자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연구 방법

1) 척도 문항

엄명용·송민경(2011)의 연구에서 활용된 권력장악가능성 16문항과 권력장악욕구 13문항을 기초로 하되, 문항의 내용 타당도 점검 및 보강을 위해 당시 활용된 척도에서 누락된 문항들(권력장악가능성 1문항, 권력장악욕구 19문항)을 포함하여 권력장악가능성 총 17문항, 권력장악욕구 총 32문항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리고 문항의 중복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연구진 2명, 학교 교사 1명, 고등학생 3명이 함께 문항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개념적 틀을 통해 확인된 권력장악가능성 요인들과⁴⁾ 권력장악욕구 요인들이 문항들 속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의 및 점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권력장악욕구 척도 문항의 많은 부분이 교체되었으며 중복되는 문항은 제거되었다. 그 결과 권력장악가능성 14문항, 권력장악욕구 18문항이 선정되었으나 문항분석 결과 권력장악욕구 18문항 중 처음 3문항⁵⁾이 다른 문항들과 낮은 상관을 보여 제외되었다. 이로써 권력장악가능성 14문항, 권력장악욕구 15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표 1〉 참조).

3) ① 가해자: 적극적, 주도적으로 괴롭힘 행동을 이끌어 가는 사람. ② 조력자: 가해자의 추종자로서 가해자를 도와주는 사람. ③ 강화자: 가해자의 행동을 격려해주는 사람. ④ 방어자: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⑤ 방관자: 학교폭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 ⑥ 피해자: 학교폭력에서 희생당하는 사람.

4) 예로서, 참조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등의 요소.

5)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내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나는 교실이나 학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의견이나 행동을 제안할 수 있다.”

〈표 1〉 최종 선정된 문항

문 항(권력장악가능성)
1. 나는 싸움을 잘하는 편이다
2. 나는 힘이 센 편이다
3. 아이들은 나를 편안하게 대한다
4. 나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5.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
6. 나에게는 '노는 친구'가 있다
7. 나에게는 '노는 선배, 노는 오빠, 노는 형' 같은 '뒷백'이 있다
8. 나는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다
9. 나는 말을 잘하는 편이다
10. 나는 호감 가는 외모를 가졌다
11. 나는 선생님에게 예뻐를 받는다
12. 나는 학업성적이 좋은 편이다
13.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이다
14. 나는 '노는 아이(담배피고, 술 마시고 등의 행동을 함)'이다
문 항 (권력장악욕구)
4. 나보다 힘이 약한 아이는 괴롭혀도 된다
5. 노는 아이들이 말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6. 아이들이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주면 기분이 좋다
7. 나를 따라주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느껴진다
8. 다른 아이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내 기분은 암울할 것이다
9. 권력이 있는 아이와 같이 다니면 나의 힘(권력)도 커질 것이다
10. 권력이 있는 아이와 같이 다니면 아이들이 나를 건들이지 않을 것이다
11. 아이들 사이에서 힘(권력)을 가지려면 신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12. 친구가 싸움을 하면 같이 싸워주는 것이 의리 있는 것이다
13. 나는 혼자일 때보다 나를 지지해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아이를 더 괴롭힌다
14. '노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15. 힘 있는 집단원이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16. 힘이 세지거나 싸움을 잘 하고 싶어서 운동을 배우거나 다른 방법의 노력을 한 적이 있다
17. 나는 마치 힘(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본 적이 있다
18. 힘(권력) 있는 아이와 같이 어울리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있다

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표준화 및 타당화 대상 문항들에 대한 예비 문항분석과 요인구조의 탐색 및 1차 확인을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중 임의표집 한 7개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엄명용·송민경(2011)에 의해 수집된 자료(즉, 요인구조 추출 표본)를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에 포함된 학교는 초등 2개교, 중등 4개교, 고등 1개교였으며, 총 1,852부가 수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82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이, 탐색된 요인 구조의 1차 확인을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모델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요인구조를 수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FA)에 활용된 표본을 사용하여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는 학자(Kline, 2005)가 있는가 하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배병렬, 2009; Gerbing and Hamilton, 1996)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 구조의 타당화 작업을 위해 별도의 표본을 활용할 것이어서 요인구조를 다듬기 위해서 동일 표본을 활용했다.

전 단계에서 확인되고 다듬어진 요인구조가 타당하고 적합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별개의 독립된 타당화 표본을 활용하였다. 두 척도의 요인 구조 타당화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중학교 중 임의표집 한 2곳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7월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중등 2개교로 총 348부가 수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3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교에서 학교폭력책임교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연구 협조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학교폭력책임교사 혹은 일반 교사들이 재량 활동시간이나 조회 시간 등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타당화 표본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판별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활용하였다.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를 바탕으로 지배자, 실력자, 추종자, 은둔자로 분류된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현장에서 학생들의 실제 역할 사이에 관련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두 척도를 활용하여 분류된 네 가지 권력관계 유형의 예측타당도를 점검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요인 구조 추출 표본

최초 확정된 문항들에 내재하는 탐색적 요인 분석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1,822명 초·중·고생 표본을 활용하였다. 성별에 응답한 학생(n=1,817)중 남학생은 732명(40.3%)이었고, 여학생은 1,085명(59.7%)으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재학 중인 학교는 중학생이 제일 많았으며(n=1,456명, 79.9%), 다음이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다(〈표 2〉 참조).

〈표 2〉 요인 구조 추출 집단의 성별 및 학교 분포

변수	변수 값	빈도	유효 퍼센트
성별	남	732	40.3
	녀	1,085	59.7
	결측값	5	-
	합계	1,822	-
학교	초등학교	157	8.6
	중학교	1,456	79.9
	고등학교	209	11.5
		1,822	100

(2) 타당화 표본

추출된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표본은 333명의 중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전체의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학년, 1학년 순이었다(〈표 3〉 참조).

〈표 3〉 타당화 표본 집단의 성별 및 학교 분포

변수	변수 값	빈도	유효 퍼센트
성별	남	172	51.7
	녀	161	48.3
	합계	333	100.0
학교	1학년	61	18.3
	2학년	131	39.3
	3학년	141	42.3
	합계	333	100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 추출방법을 요인분석 모형으로 선택했고, 요인수 결정을 위해서는 아이겐 값 1 이상, 스크리 테스트, 누적분산비율, 해석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참조하였다. 요인구조 회전으로는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직각회전(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1) 권력장악가능성

14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 값을 1 이상으로 했을 때 요인의 수는 4개로 나타났고, 이때 누적분산비율은 62.709%였으며, 스크리 plot을 살펴봤을 때 4번째 요인 후 선의 경사가 확연히 완만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요인을 4개로 확정하여 최종 모형으로 정하여 베리맥스(verimax) 요인 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0.4 이상의 요인계수 문항만을 나타냈을 때 14개의 문항들이 4개의 요인에 중복 없이 적재되었다. 이 때 KMO와 Bartlett's 구형성 검사결과 표본 적합성 지수는 .797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성을 나타냈고, 카이제곱값은 7766.418, $df=91$ ($p=.000$)로 나타나 요인분석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그 결과 얻은 회전 후 요인행렬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4개의 요인구조가 확인되어 각 요인에 이름을 부여하였다. 요인 1에 모두 5개 문항이 적재되었는데 이들 문항들은 개인이나 개인의 내·외적 속성에서 비롯된 권력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학업 성적이 좋거나 호감 가는 외모를 소지한 것, 말을 잘하는 것 등은 개인 내적 권력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집이 부유한 편이나 선생님의 예쁨을 받는 것 등은 개인 외적 권력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끄는 요인이라고 보아 요인 1을 '매력 자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 적재된 3개

의 문항은 일반 친구들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 관계 친화력을 나타내는 내용들이라 판단되어 요인 2를 '일반 관계 자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주로 다른 학생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3을 '무력 자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에 적재된 3개 문항의 내용은 주로 불량 후원 세력의 소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4를 '불량 후원 자원'으로 명명하였다. 권력장악가능성 14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 $\alpha = .779$ 으로서 척도의 구성요소들(문항)들의 동질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권력장악가능성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	요인			
		1	2	3	4
11	나는 선생님에게 예쁨을 받는다	.719			
12	나는 학업성적이 좋은 편이다	.698			
13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이다	.496			
10	나는 호감 가는 외모를 가졌다	.491			
9	나는 말을 잘하는 편이다	.437			
4	나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785		
5	나는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		.687		
3	아이들은 나를 편안하게 대한다		.663		
2	나는 힘이 센 편이다			.925	
1	나는 싸움을 잘하는 편이다			.737	
8	나는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다			.422	
7	나에게는 '노는 선배, 노는 오빠, 노는 형' 같은 '뒷뺨'이 있다				.782
6	나에게는 '노는 친구'가 있다				.658
14	나는 '노는 아이'(담배피고, 술 마시고 등의 행동을 함)이다				.502

(2) 권력장악욕구

15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구성개념을 확실히 설명해 주는 문항만으로 척도를 간명화하기 위해 요인계수가 0.4미만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아이젠 값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스크리 plot이 5개의 요인에서부터 수평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누적분산비율은 64.286%를 나타냈다. 따라서 4개의 요인으로 확정하고 varimax 요인회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4개의 문항들이 4개의 요인에 중복 없이 적재되었다. KMO와 Bartlett's 구형성 검사결과 sample 적합성 지수는 .876로서 0.8보다 크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성을 나타냈고, 카이제곱값이 10617.451, $df = 105(p = .000)$ 로 나타나 요인분석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그 결과 얻은 회전 후 요인행렬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4개의 요인구조가 확인되어 각 요인에 이름을 부여하였다. 요인 1에 모두 5 문항이 적재되었는데 이들 문항의 내용은 힘 있는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구, 스스로 힘을 과시해 보고 싶은 욕구와 관계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1을 '힘집단 소속'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 적재된 4 문항의 내용은 주로 힘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강해지거나 거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과 관

계가 있다. 따라서 요인 2를 '힘 집중'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기 좋아하는 욕구와 관계된 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3을 '지휘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힘(권력)이 있는 아이들의 힘을 빌려보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3문항으로 되어 있어 요인 4를 '힘 빌림'으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 선택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권력장악욕구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 $\alpha = .868$ 으로서 척도의 구성요소들(문항)들의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권력장악욕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	요인			
		1	2	3	4
15	힘 있는 집단원이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752			
18	힘(권력) 있는 아이와 같이 어울리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있다	.745			
14	'노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706			
17	나는 마치 힘(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본 적이 있다	.656			
16	힘이 세지거나 싸움을 잘 하고 싶어서 운동을 배우거나 다른 방법의 노력을 한 적이 있다	.540			
13	나는 혼자일 때보다 나를 지지해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아이를 더 괴롭힌다		.620		
11	아이들 사이에서 힘(권력)을 가지려면 신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536		
12	친구가 싸움을 하면 같이 싸워주는 것이 의리 있는 것이다		.482		
4	나보다 힘이 약한 아이는 괴롭혀도 된다		.476		
7	나는 따라주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느껴진다			.877	
6	아이들이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주면 기분이 좋다			.737	
8	다른 아이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내 기분은 암울할 것이다			.453	
9	권력이 있는 아이와 같이 다니면 나의 힘(권력)도 커질 것이다				.702
10	권력이 있는 아이와 같이 다니면 아이들이 나를 건들지 않을 것이다				.658
5	노는 아이들이 말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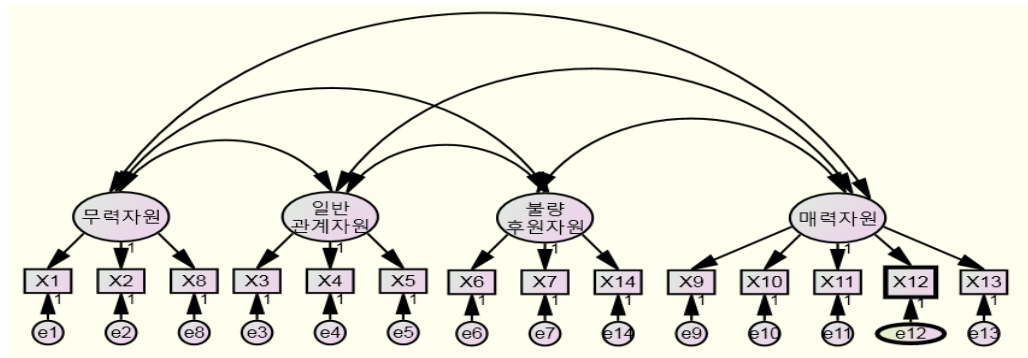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두 가지 척도(권력장악가능성, 권력장악욕구)의 요인구조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2단계에 걸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요인구조를 수정하기 위해 모델추정 표본(N=1,822)을 활용하여 수행되었고, 2단계 확인적 요인분석은 1단계 작업을 통해 수정된 요인구조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타당화 표본(N=333)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1) 모델추정 표본(calibration sample)(N=1,822)을 통한 요인구조의 확인 및 수정

① 권력장악가능성

권력장악가능성 개념의 요인구조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측정모형을 구성한 후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의 부합도를 알아보았다. <그림 2>에서 '매력자원' 요인에 지표 X12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델 A], 지표 X12가 제거된 것은 [모델 B]이다. [모델 A]와 [모델 B]의 부합도를 알아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그림 2> 권력장악가능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6> 권력장악가능성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의 적합도

모형	NPAR	DF	CMIN	NC	SRMR	TLI	CFI	RMSEA	
								LO90	HI90
모델 A	34	71	802.074	11.297	.0616	.878	.905	.072	.081
모델 B	32	59	490.160	8.308	.0488	.917	.937	.059	.070

Bollen(1989)에 의하면 NC값이 2.0~3.0 수준이면 적절하며 경우에 따라 5.0 정도까지 적절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표 6>에서 [모델 A]의 NC=11.297로 나타나 적절하지 않은 값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SRMR이 .05 이하면 양호한 모형으로, .10 이하이면 대체로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되는데 <표 6>에서 [모델 A]의 SRMR 값은 .0616으로서 대체로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CFI는 .90 이상이면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모델 A]의 CFI값은 .905로 나타나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RMSEA는 .05 이하이면 오류의 정도가 아주 양호한 모델이며, .05<RMSEA<.08이면 모델 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정도인 반면 .10 이상이면 부합도에 문제가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Browne and Cudeck, 1993). 한편 문수백(2010)은 모형 부합도 평가에 있어 평균 RMSEA값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상한치를 확인한 후 그것이 .10 이하일 경우에 모델이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델 A]의 경우 평균 RMSEA는 .077이며, RMSEA의 상

한치는 .081로 부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NC를 제외한 다른 부합도지수가 적절하므로 [모델 A]는 대체적으로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델 수정 지수를 중심으로 모델의 적합도 향상 가능성을 탐색해 본 결과 X12(“나는 학습 성적이 좋은 편이다.”)⁶⁾가 ‘불량후원세력’의 지표뿐 아니라 ‘일반관계자원’, ‘무력자원’ 등의 지표로 조정될 때 모델 부합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더하여 X12는 X13(“우리 집은 부유한 편이다.”)과 중복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⁸⁾ 따라서 X12를 ‘매력자원’ 요인으로부터 제거 하고 [모델 B]를 구성한 후 확인해 본 적합도 수치들이 <표 6>의 [모델 B]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모델 B]의 NC는 8.308로 [모델 A]에 비해 적합도가 약간 좋아졌으나 Bollen(1989)의 기준에는 역시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SRMR은 0.0488로서 0.05보다 작아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CFI는 .937로서 [모델 A]보다 적합도가 향상됐다. [모델 B]의 경우 평균 RMSEA는 .064이며, RMSEA의 상한치는 .070으로 부합도지수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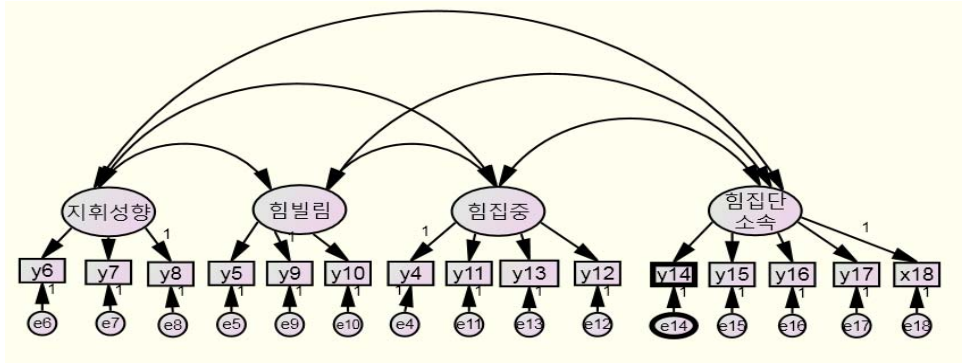
② 권력장악욕구

권력장악욕구 개념의 요인구조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측정모델을 구성한 후 모델의 부합도를 알아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그림 3>에서 내재변인 ‘힘집단 소속’이 지표 y14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모델 C],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델 D]이다. <표 7>에서 [모델 C]의 경우 NC=11.380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RMR 값은 .0464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CFI값은 .917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평균 RMSEA는 .077, RMSEA의 상한치는 .082로 부합도지수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NC를 제외한 다른 부합도지수가 적절하므로 위 모델A는 대체적으로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6) <표 4>의 문항번호 12 참조.

7) ‘불량후원세력’ →X12 간 경로 설정할 경우 모델부합도(χ^2_M)는 76.657 만큼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e12와 e13 간 상관관계 설정을 할 경우 모델부합도(χ^2_M)는 96.932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권력장악욕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7〉 권력장악욕구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의 적합도

모델	NPAR	DF	CMIN	NC	SRMR	TLI	CFI	RMSEA	
								LO90	HI90
모델 C	36	84	955.950	11.380	.0464	.897	.917	.073	.082
모델 D	34	71	625.732	8.813	.0602	.922	.939	.062	.072

하지만 모델 수정 지수를 중심으로 모델의 적합도 향상 가능성을 탐색해 본 결과 y14(“노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가 y15(“힘 있는 집단원이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와 중복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¹⁰⁾ 따라서 y14를 ‘힘집단소속’ 요인으로부터 제거한 뒤 [모델 D]를 구성하였다. 그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모델 D]의 NC는 8.813으로 [모델 C]에 비해 적합도가 약간 좋아졌으나 Bollen(1989)의 기준에는 역시 미치지 못했다. SRMR은 0.0602로서 대체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CFI는 .939로서 [Model C]보다 적합도가 향상됐다. 평균 RMSEA는 .067이며, RMSEA의 상한치는 .072로 부합도 지수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타당화 표본(validation sample)(N=333)을 통한 요인구조 타당화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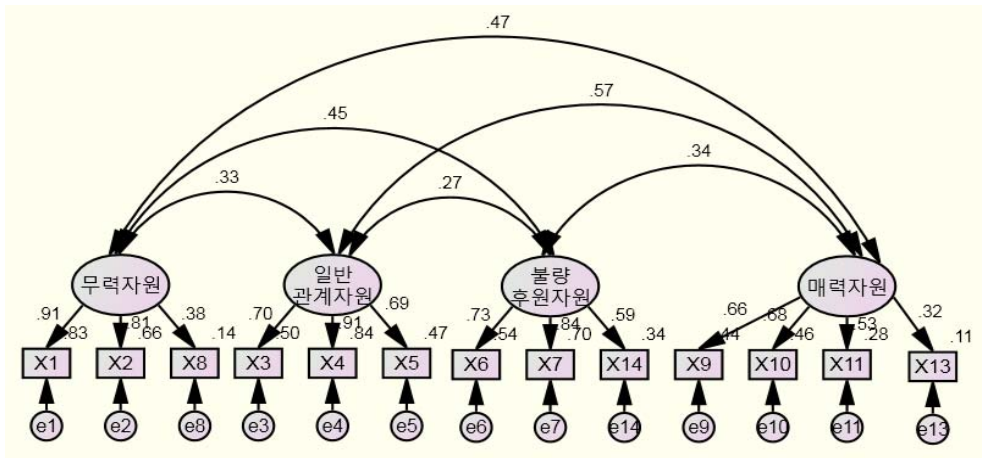
앞서 수행된 모델 적합도 검증을 통해 수정된 [모델 B]와 [모델 D]는 모델추정을 위해 사용된 표본자료(N=1,822)에만 부합되도록 만들어진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 B](〈그림 4〉 참조)와 [모델 D](〈그림 5〉 참조)가 표집 오차에 의한 우연적 모델이 아님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지만, 모델 추정 및 수정에 사용된 표본자료와는 다른 타당화 표본(N=333)을 갖고 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추정치의 반복추정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9) 〈표 5〉의 문항번호 14 참조.

10) e14과 e15 간 상관관계 설정을 할 경우 모델부합도(χ^2_M)는 152.861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지수들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① 권력장악가능성

[모델 B](<그림 4> 참조)에 대한 타당화 검증 결과 <표 8> 안의 '타당화모델'항에서 볼 수 있듯이 NC=2,694으로서 Bollen(1989)의 기준¹¹⁾에 따라 적절한 모델로 나타났으며 SRMR 값은 .0643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CFI값은 .927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평균 RMSEA는 .071, RMSEA의 상한치는 .084로 부합도 지수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모델 추정 표본을 통해 확인된 [모델 B]의 요인구조는 타당화 표본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즉 요인구조의 반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4> 권력장악가능성 타당화 모형의 표준화 계수 추정 결과

<표 8> 권력장악가능성 타당화 모형의 적합도

모델	NP AR	DF	CMIN	NC	SRMR	TLI	CFI	RMSEA	
								LO90	HI90
추정모델	32	59	490.160	8.308	.0488	.917	.937	.059	.070
타당화모델	32	59	158.947	2.694	.0643	.904	.927	.058	.084

교차타당성 검증의 수준은 ㉠ 요인구조의 반복추정가능성, ㉡ 요인구조 및 요인부하량의 반복추정가능성(구조가중 모델, structural weights model)¹²⁾, ㉢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그리고 요인 간 공분산의 반복추정가능성(구조공분산 모델, structural covariance model)¹³⁾, ㉣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요인 간 공분산, 지표변인의 오차분산의 반복추정가능성(구조잔차모델, structural residuals model)¹⁴⁾으

11) NC값이 2.0~3.0 수준이면 적절한 모형

12) 추정집단에서 개발된 모형의 요인구조는 물론 요인부하량까지 타당화 집단에서도 반복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검증해 준다.

13) 추정집단에서 개발된 모형의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그리고 요인 간 공분산까지 타당화 집단에서도 반복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검증해 준다.

로 나누어 볼 수 있다(문수백, 2010). 엄격한 의미에 있어 CFA 모델의 교차타당성 검증은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요인 간 공분산 그리고 지표변인의 오차분산의 반복추정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수백, 2010). 요인구조의 반복추정가능성은 <표 8>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구조가중모델, 구조공분산 모델, 구조잔차모델의 부합도를 각각 살펴본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 권력장악가능성 모델의 교차타당성 검증 결과

Model	DF	CMIN	P	NFI	IFI	RFI	TLI
				Delta-1	Delta-2	rho-1	rho2
구조가중(measurement weights)	9	19.646	0.02	0.002	0.002	-0.004	-0.004
구조공분산 (structural covariances)	10	16.573	0.084	0.002	0.002	-0.005	-0.005
구조잔차 (measurement residuals)	13	73.131	0	0.009	0.009	0.001	0.001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정집단과 타당화집단 간에 9개의 요인부하량이 같은 것으로 동치제약을 한 모델(구조가중모델)의 부합도가 CMIN=19.646 정도 변화(감소)되었고 그 정도가 $\alpha = 0.01$ 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2$). 따라서 타당화 집단에서도 추정집단에서 얻어진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게(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만큼) 반복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추정 집단에서 얻어진 요인부하량 뿐만 아니라 요인간의 분산/공분산까지도 타당화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값이 얻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에 10개의 모수치를 동치로 제약을 한 결과, 모델(구조공분산모델)의 부합도가 CMIN=16.573 정도 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lpha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84$). 즉, 타당화 집단에서도 추정 집단에서 얻어진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그리고 요인 간 분산/공분산 모수치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 모델에서 얻어진 지표변인들의 오차분산까지도 타당화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얻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 집단과 타당화 집단 간에 13개의 오차분산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동치제약을 한 결과 모델(구조잔차모델)의 부합도가 CMIN=73.131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alpha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 = .000$) 추정모델의 모든 모수치가 타당화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정 모델의 교차타당성은 구조공분산모델까지만 타당성의 증거가 확보되었다.

교차타당성이 확인된 모델의 각 잠재변인들의 특성이 <표 10>에 제시되었다. <표 10>에는 ㉠ 지표변인과 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맨 우측 열의 '표준화' 항), ㉡ 하위요인 간 공분산(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맨 우측 열의 '표준화' 항 하단), 그리고 ㉢ 각 지표변인의 오차변량의 추정 모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모델 속에 설정된 요인들은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14) 추정집단에서 수정·개발된 최종모델의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요인 간 공분산, 그리고 지표변인의 오차분산까지도 타당화 집단에서도 똑같이(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만큼의 차이) 반복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준다.

하위요인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되지 않을 만큼 서로 상관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며($r < .85$), 하위요인들 간에는 논리적 기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문수백, 2010). <표 10>에서 하위 요인 간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567(‘일반관계자원’↔‘매력자원’), 가장 낮은 상관계수는 .270(‘일반관계자원’↔‘불량후원자원’)이었으며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하위 요인 간 적절한 변별타당도를 갖춘 가운데 각 하위요인이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해 내고 있었다. 변별타당성 확인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AVE)값과 요인들 간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AVE값>상관계수의 제곱(r_{ij}^2)이면 다른 요인들 간 상관관계보다 내적으로 더 높은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김영국·한상현, 2008; 이태숙·김철원, 2008; Ping, 2004). 즉 상호 설명되는 부분보다 내부 문항들 간 응집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면 변별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표 11>에서 모든 AVE값> r_{ij}^2 으로 나타나 변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권력장악가능성 요인의 타당화 모델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추정치 결과

모수치	비표준화	S.E.	C.R.	P	표준화
<u>직접효과</u>					
x8 ← 무력자원	.550	.082	6.700	***	.378
x2 ← 무력자원	1.000				.812
x1 ← 무력자원	1.054	.082	12.842	***	.913
x5 ← 일반관계자원	.804	.065	12.403	***	.687
x4 ← 일반관계자원	1.000				.914
x3 ← 일반관계자원	.752	.059	12.684	***	.704
x14 ← 불량후원자원	.560	.059	9.444	***	.587
x7 ← 불량후원자원	1.000				.836
x6 ← 불량후원자원	.929	.086	10.836	***	.735
x11 ← 매력자원	1.000				.528
x10 ← 매력자원	1.481	.200	7.407	***	.676
x9 ← 매력자원	1.296	.176	7.364	***	.663
x13 ← 매력자원	.574	.124	4.625	***	.324
<u>분산과 공분산</u>					
무력자원	.669	.085	7.838	***	
일반관계자원	.568	.060	9.427	***	
불량후원자원	.788	.102	7.751	***	
매력자원	.217	.049	4.423	***	
e8	1.216	.096	12.708	***	
e2	.346	.051	6.760	***	
e1	.147	.050	2.968	.003	
e5	.410	.038	10.751	***	
e4	.112	.032	3.443	***	
e3	.326	.031	10.448	***	
e14	.470	.042	11.261	***	
e7	.340	.065	5.255	***	

e6		.579	.069	8.447	***	
e11		.564	.051	11.125	***	
e10		.568	.065	8.800	***	
e9		.466	.051	9.078	***	
e13		.611	.049	12.455	***	
무력자원	↔ 매력자원	.178	.035	5.086	***	.466
무력자원	↔ 불량후원자원	.330	.055	6.011	***	.454
무력자원	↔ 일반관계자원	.205	.042	4.937	***	.333
일반관계자원	↔ 매력자원	.199	.034	5.923	***	.567
일반관계자원	↔ 불량후원자원	.181	.045	4.010	***	.270
불량후원자원	↔ 매력자원	.139	.035	4.029	***	.337

$$\text{잠재변인 신뢰도} = \frac{(\sum \text{표준화요인부하량})^2}{(\sum \text{표준화요인부하량})^2 + \sum (\text{측정변수의 오차})} \quad (\text{식 1})$$

$$\text{평균분산추출지수} = \frac{\sum (\text{표준화요인부하량}^2)}{\sum (\text{표준화요인부하량}^2) + \sum (\text{측정변수의 오차})} \quad (\text{식 2})$$

$$\text{지표변인의 측정의 오차(측정변수의 오차)} = 1 - (\text{표준화요인부하량})^2 \quad (\text{식 3})$$

<표 11> 권력장악가능성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상관계수 제곱, r_{ij}^2)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무력자원	일반관계자원	불량후원자원	매력자원
무력자원	.49*			
일반관계자원	.333(.111)	.68*		
불량후원자원	.454(.206)	.270(.073)	.53*	
매력자원	.466(.217)	.567(.321)	.337(.114)	.37*

*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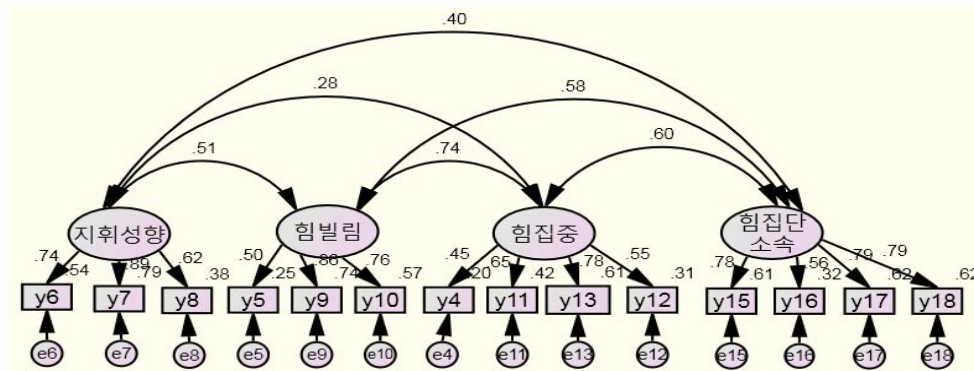
다음으로 타당화 모델 내 각 잠재요인의 신뢰도와 각 요인별 지표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AVE) 정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잠재변인의 신뢰도는 최소한 .70이상이어야 하고 평균분산추출정도는 최소한 .50이상이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는데(문수백, 2010: 529), <표 12>에서 '매력자원' 하위 요인의 신뢰도가 .684, AVE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나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하위 요인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문항(13)으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α)는 .770이었다.

〈표 12〉 권력장악가능성의 잠재변인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

잠재요인명	지표	표준 요인부하량	오차(e) 분산	신뢰도	평균분산추출지수
무력자원	x8	.378	1.216	.721	.49
	x2	.812	.346		
	x1	.913	.147		
일반관계자원	x5	.687	.410	.862	.68
	x4	.914	.112		
	x3	.704	.326		
불량후원자원	x14	.587	.470	.770	.53
	x7	.836	.340		
	x6	.735	.579		
매력자원	x11	.528	.564	.684	.37
	x10	.676	.568		
	x9	.663	.466		
	x13	.324	.611		

② 권력장악욕구

[모델 D](〈그림 5〉 참조)에 대한 타당화 검증 결과 〈표 13〉 안의 '타당화모델'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NC=3.113으로서 Bollen(1989)의 기준¹⁵⁾에 따라 적절한 모델로 나타났으며 SRMR 값은 .0632로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CFI값은 .915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평균 RMSEA는 .079, RMSEA의 상한치는 .090으로 부합도 지수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정 모델은 요인구조의 반복 가능성이 확인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권력장악욕구 타당화모형의 표준화계수 추정 결과

15) NC값이 2.0~3.0 수준이면 적절한 모형

<표 13> 권력장악욕구 타당화 모형의 적합도

모델	NPA R	DF	CMIN	NC	SRMR	TLI	CFI	RMSEA	
								LO90	HI90
추정모형	34	71	625.732	8.813	.0602	.922	.939	.062	.072
타당화모델	34	71	221.051	3.113	.0632	.891	.915	.067	.090

<표 14> 권력장악욕구 모델의 교차타당성 검증 결과

Model	DF	CMIN	P	NFI	IFI	RFI	TLI
				Delta-1	Delta-2	rho-1	rho2
구조가중 (measurement weights)	10	12.974	0.225	0.001	0.001	-0.005	-0.005
구조공분산 (structural covariances)	10	5.212	0.877	0	0	-0.005	-0.005
구조잔차 (measurement residuals)	14	20.886	0.105	0.002	0.002	-0.005	-0.005

권력장악욕구에 대한 요인구조의 반복가능성이 확인된 모델에서 구조가중모델, 구조공분산 모델, 구조잔차모델의 부합도를 각각 살펴본 결과는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부하량의 반복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정 집단과 타당화 집단 간에 10개의 요인부하량이 같은 것으로 동치제약을 한 모델(구조가중모델)의 부합도가 CMIN=12.974 정도 변화(감소)되었고, 그 정도가 $\alpha=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225$). 따라서 타당화 집단에서도 추정 집단에서 얻어진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게(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만큼) 반복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추정 집단에서 얻어진 요인부하량 뿐만 아니라 요인간의 분산/공분산까지도 타당화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값이 얻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에 10개의 모수치를 동치로 제약을 한 결과, 모델(구조공분산모델)의 부합도가 CMIN=5.212 정도 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lpha=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877$). 즉, 타당화 집단에서도 추정 집단에서 얻어진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그리고 요인 간 분산/공분산 모수치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모델에서 얻어진 지표변인들의 오차분산까지도 타당화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얻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집단과 타당화 집단 간에 14개의 오차분산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동치제약을 한 결과, 모델(구조잔차모델)의 부합도가 CMIN=20.886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alpha=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05$). 즉, 최종 추정모델의 모든 모수치가 타당화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차타당성이 확인된 모델의 각 잠재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가 <표 15>에 제시되었다. <표 15>에서 하위 요인 간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744('힘집중'↔'힘빌림'), 가장 낮은 상관계수는 .281('지휘성향'↔'힘집중')이었으며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하위 요인 간 적절한 변별타당도를 갖춘 가운데 각 하위요인이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변별타당성 확인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AVE)값과 요인들 간 상관계수를 제공한 값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집중’과 ‘힘빌립’ 사이의 상관계수 (.744)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AVE_{\text{힘빌립}} < r_{\text{힘집중.힘빌립}}^2$, $AVE_{\text{힘집중}} < r_{\text{힘집중.힘빌립}}^2$ 로 나타나 ‘힘빌립’과 ‘힘집중’ 요인의 내부 문항 간 상관성이 요인 간 상관성에 비해 낮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힘빌립’과 ‘힘집중’을 제외한 다른 요인 간 변별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표 15> 권력장악욕구 요인의 타당화 모델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추정치 결과

모수치		비표준화	S.E.	C.R.	P	표준화
직접효과						
y8	← 지휘성향	1				0.618
y7	← 지휘성향	1.339	0.125	10.753	***	0.887
y6	← 지휘성향	1.061	0.100	10.576	***	0.738
y9	← 힘빌립	1				0.859
y5	← 힘빌립	0.665	0.075	8.866	***	0.497
y10	← 힘빌립	0.904	0.065	13.821	***	0.756
y4	← 힘집중	1				0.448
y11	← 힘집중	1.978	0.283	6.988	***	0.649
y13	← 힘집중	2.106	0.285	7.391	***	0.780
y12	← 힘집중	1.622	0.249	6.509	***	0.554
y18	← 힘집단소속	1				0.786
y15	← 힘집단소속	1.088	0.077	14.042	***	0.781
y16	← 힘집단소속	0.870	0.087	9.993	***	0.564
y17	← 힘집단소속	1.014	0.072	14.108	***	0.785
분산과 공분산						
지휘성향		0.445	0.076	5.815	***	
힘빌립		0.764	0.086	8.898	***	
힘집중		0.139	0.036	3.913	***	
힘집단소속		0.475	0.059	8.079	***	
e6		0.418	0.045	9.286	***	
e7		0.215	0.052	4.171	***	
e8		0.720	0.063	11.419	***	
e5		1.026	0.083	12.303	***	
e9		0.272	0.044	6.140	***	
e10		0.468	0.049	9.590	***	
e4		0.555	0.045	12.259	***	
e11		0.75	0.071	10.629	***	
e13		0.397	0.051	7.790	***	
e12		0.828	0.071	11.615	***	
e15		0.359	0.038	9.404	***	
e16		0.769	0.064	12.014	***	
e17		0.304	0.033	9.299	***	
e18		0.295	0.032	9.288	***	
지휘성향	↔ 힘집단소속	0.184	0.035	5.252	***	0.400
지휘성향	↔ 힘집중	0.070	0.020	3.507	***	0.281
지휘성향	↔ 힘빌립	0.298	0.048	6.239	***	0.511

힘집단소속 ↔ 힘빌림	0.348	0.047	7.450	***	0.578
힘집중 ↔ 힘빌림	0.243	0.039	6.185	***	0.744
힘집중 ↔ 힘집단소속	0.153	0.027	5.618	***	0.596

다음으로 타당화 모델 내 각 잠재요인의 신뢰도와 각 요인별 지표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AVE)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17>에서 모든 잠재변인의 신뢰도는 .70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균분산추출지수에 있어 '힘빌림' .47, '힘집중' .38로 나타나 이 두 하위 요인의 신뢰도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힘빌림'과 '힘집중' 하위 요인 간 높은 상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문항(14)으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α)는 .855로 나타났다.

<표 16> 권력장악욕구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상관계수 제곱, r_{ij}^2)와 평균분산추출지수

	지휘성향	힘빌림	힘집중	힘집단소속
지휘성향	.56*			
힘빌림	.511(.261)	.47*		
힘집중	.281(.079)	.744(.554)	.38*	
힘집단소속	.400(.160)	.578(.334)	.596(.352)	.56*

* 평균분산추출지수(AVE)

<표 17> 권력장악욕구의 잠재변인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정도

잠재요인명	지표	표준 요인부하량	오차(e)	신뢰도	평균분산추출정도
지휘성향	y8	0.618	0.720	.788	.56
	y7	0.887	0.215		
	y6	0.738	0.418		
힘빌림	y9	0.859	0.272	.716	.47
	y5	0.497	1.026		
	y10	0.756	0.468		
힘집중	y4	0.448	0.555	.700	.38
	y11	0.649	0.750		
	y13	0.780	0.397		
	y12	0.554	0.828		
힘집단소속	y18	0.786	0.295	.83	.56
	y15	0.781	0.359		
	y16	0.564	0.769		
	y17	0.785	0.304		

4) 권력관계 유형의 예측 타당도 검증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 척도는 각각의 독립된 척도로서 앞서 제시된 결과에서 보듯 적절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 개별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두 가지 척도를 <그림 1>처럼 2차원으로 결합하면 권력관계 유형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얻어낸 권력관계 유형(<그림 1> 참조)이 학교폭력 현장 내 역할을 어느 정도 예측해내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앞서 타당화 표본(n=348)의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 사이의 적률상관계수는 .259로 낮게 나타났다.

<표 18> 타당화표본(유효 n=348) 기술통계치

	평균값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권력장악가능성	35.03	35.00	18	55
권력장악욕구	34.03	34.00	14	57

권력관계 유형의 예측타당도 확인을 위해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의 중앙값(각각 35, 34)을 기준으로 각 변수를 높은 값과 낮은 값으로 나눠, 앞서 제시한 <그림 1>과 같은 네 개의 권력 유형을 확인해 냈다. 권력관계 유형별 인원이 <표 19>에 제시되었다. 총 333명 중 은둔자가 105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실력자가 62명(18.6%)으로 가장 적었다. 학교폭력 현장에서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알아본 결과가 역시 <표 19>의 우측에 제시되었다. 유효 응답자 257명 가운데 방관자가 164명(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가 7명(2.7%)으로 가장 적었다. 가해자 역시 8명(3.1%)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표 19> 권력관계 유형 및 학교폭력 행위자 역할 (N=333)

	권력관계 유형(유효응답자 n=333)					학교폭력 행위자 역할(유효응답자 n=257)						
	지배자	실력자	추종자	은둔자	합계	가해자	조력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합계
빈도	95	62	71	105	333	8	15	21	42	164	7	257
유효 %	28.5	18.6	21.3	31.5	100	3.1	5.8	8.2	16.3	63.8	2.7	100

학교폭력 현장 내 역할을 6개의 범주로 분류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4개의 cell 중 14개의 cell(전체의 58.3%)이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나타내 유효한 교차분석 결과 도출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폭력 행위자 중 가해·조력·강화를 가해적 성격을 가진 하나의 범주로 묶고, 방관·피해를 피

해적 성격을 가진 범주로 묶어 다시 교차분석을 한 결과가 <표 20>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chi^2 = 14.194$ ($df=6, p=.028$)로 $\alpha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배자나 실력자와 같이 권력장악가능성이 큰 유형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가해·조력·강화자의 역할에 분포했고, 지배자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방어자의 역할에, 그리고 일반적인 예상보다 낮은 빈도로 방관·피해자의 역할에 분포했다. 반면, 은둔자나 추종자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방관·피해자의 역할을 실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의 상하 값을 기준으로 네 개의 권력관계 유형으로 나눌 때 이 유형들은 Salmivalli 외(1996)가 제시한 여섯 가지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16)과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 간 관계를 살펴본 엄명용·송민경(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라는 두 개의 척도를 활용하여 분류된 권력관계 유형은 실제 학교폭력현장 내 역할을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대로 대체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권력장악유형과 학교폭력 현장 내 실제 역할 간 교차분석 결과

		학교폭력 현장 내 실제 역할			전체	
		가해·조력·강화	방어	방관·피해		
권 력 관 계 유 형	지배자	관측빈도	18	17	42	77
		기대빈도	13.2	12.6	51.2	77.0
	실력자	관측빈도	12	9	29	50
		기대빈도	8.6	8.2	33.3	50.0
	추종자	관측빈도	6	5	44	55
		기대빈도	9.4	9.0	36.6	55.0
	은둔자	관측빈도	8	11	56	75
		기대빈도	12.8	12.3	49.9	75.0
전체	관측빈도	44	42	171	257	
	기대빈도	44.0	42.0	171.0	257.0	

5. 결과 요약 및 활용 방법

본 연구의 척도 타당화 작업은 학교폭력이 학교 내 청소년들 사이의 집단 메커니즘과 관련 있는 또래들의 행동과 태도를 중심으로(Olweus and Limber, 2010), 특히 평소에 학생들 가운데 존재하는 권력 기제(mechanisms)에 기반을 두고 발생한다(송민경, 2009; 엄명용·송민경, 2011)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즉 학교폭력은 상대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권력을 가진 피해자에

16) ① 가해자: 적극적, 주도적으로 괴롭힘 행동을 이끌어 가는 사람. ② 조력자: 가해자의 추종자로서 가해자를 도와주는 사람. ③ 강화자: 가해자의 행동을 격려해주는 사람. ④ 방어자: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⑤ 방관자: 학교폭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 ⑥ 피해자: 학교폭력에서 희생당하는 사람.

대한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고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권력의 지위와 그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자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전제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최종 제시된 두 척도(권력장악가능성, 권력장악욕구)는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두 척도를 결합하여 분류해낸 권력관계 유형(〈그림 1〉 참조)은 학교폭력 현장 내 역할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바 대로 예측해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권력장악가능성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무력자원’, ‘일반관계자원’, ‘불량후원자원’, ‘매력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 척도의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요인 간 분산/공분산 모수치까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하위요인 간 적절한 변별타당도를 갖춘 가운데 각 하위요인이 동일한 구성개념(즉, 권력장악가능성)을 측정해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력장악가능성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770이었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도 매력자원($\alpha = .684$)을 제외하고는 모두 0.70 이상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적절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권력장악가능성 척도 역시 4개의 하위요인(‘지휘성향’, ‘힘빌림’, ‘힘집중’, ‘힘집단소속’)을 갖고 있으며 이 척도의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요인 간 분산/공분산 모수치, 오차분석까지 모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힘빌림’과 ‘힘집중’ 간 상관계수가 .744로 나타나 그들 간 변별타당도에 약간 문제가 있었으나 나머지 하위요인 간에는 적절한 변별타당도를 갖춘 가운데 각 하위요인들이 동일한 구성개념(즉, 권력장악욕구)을 측정해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력장악욕구 전체 신뢰도(α)는 .855이었고, 모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가 .70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권력장악가능성 척도와 권력장악욕구 척도 간 적률상관관계는 .259로 낮은 상관을 보여 두 척도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개의 척도는 평소 학생들을 많이 접하는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에 의해 학교 내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 유형을 파악하는데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척도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록〉에 있는 ‘권력장악가능성’ 13문항¹⁷⁾, ‘권력장악욕구’ 14문항¹⁸⁾으로 구성된 설문문을 학생들에게 실시한다. 둘째, 각 척도에 속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하여 학생 개인의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 점수를 구한다. 셋째, 학생 개인별 점수에 대한 집단 내 평균, 중앙값, 사분위값 등을 구하여 집단 내에서 개별 학생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 본다. 넷째,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의 집단 중앙값을 기준으로 그 값보다 큰 값과 작은 값으로 구분하여 〈그림 1〉과 같은 4개의 권력관계 유형(지배자, 실력자, 추종자, 은둔자)을 확인해낸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권력장악가능성’, ‘권력장악욕구’는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개념이라서 집단 안에서 상위 50% 또는 하위 50%를 구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확인된 유형에 따라 지배자는 가해·조력·강화자 또는 방어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력자 역시 가해·조력·강화자의 역할을 가능성이 높으며, 은둔자나 추종자는 방관·피해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로써 학생들이 집단 권력관계 안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며, 그 유형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큰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7) 〈표 1〉의 ‘권력장악가능성’ 문항 중 12번 문항이 제외됨.

18) 〈표 1〉의 ‘권력장악욕구’ 문항 중 14번 문항이 제외됨.

두 개의 척도를 각각 활용하여 학생들의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의 상대적 크기를 각각 파악한 후에는 각 척도의 하위척도별 점수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의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 중에서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력장악가능성이 비교적 큰 학생의 경우, 그것이 '일반관계자원'의 크기가 큼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불량후원자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큼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권력장악욕구가 비교적 큰 학생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적으로 큰 '지휘성향'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힘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 자료는 교사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로 하여금 하위 영역 별로 보다 상세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단, 이러한 세부 하위척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위개념 중 신뢰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권력장악가능성 내 하위요인인 '매력자원'($\alpha = .684$)과 권력장악욕구 내 하위요인인 '힘빌립'($\alpha = .716$), '힘집중'($\alpha = .700$)에 대한 해석에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6.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타당화를 거친 척도를 활용하여 파악된 학생 개개인의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욕구의 상대적 크기와 학생들 간 격차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지도 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개발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망, 권력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내 권력관계 유형별로 개입 내용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배자 유형으로 파악된 학생들에게는 친구들 사이에서 권력이나 지휘의 획득이 꼭 학교폭력이라는 힘의 행사만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실력자 유형의 아이들은 권력장악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장악욕구가 지배자 유형의 학생에 비해 작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학교폭력 발생 시 자신들의 힘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방어해주는 한편 지배자 유형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배자나 실력자 유형으로 확인되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자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학교폭력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권력장악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 비교적 강한 권력장악욕구를 갖고 있는 추종자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지배자 유형의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을 방관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학교폭력 발생 시, 감시자나 신고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배자 유형의 학생들과 어울리며 하다보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려 것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권력장악가능성과 약한 권력장악욕구를 갖고 있는 은둔자 유형의 학생들은 자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교사, 학부모, 사회복지사 등의 세심한 주의, 관심, 관찰 및 수시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유형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당했을 때, 자신의 친구, 부모, 교사 등에게 도움을 청하고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해야 할 것이다(엄명용·송민경, 2011). 하지만 여

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척도를 통해 파악된 권력관계 유형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일종의 “꼬리표(label)”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타당화를 거친 척도와 이를 이용한 권력관계 유형의 범주화, 그리고 범주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자 유형의 예측력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전국적 표본을 갖고 반복적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타당화 표본(N=333)에서는 피해자가 7명, 가해자가 8명에 불과하여 권력관계 유형에 따라 Salmivalli 외(1996)가 제시한 여섯 가지 학교폭력 행위 역할 유형을¹⁹⁾ 세분하여 예측해 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본 크기를 확대한다면 학교폭력 행위자 범주별 기대빈도가 확대되어 권력관계유형과 학교폭력 행위자 역할 간 관계 규명이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학교 폭력 현실에 맞는 문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효용성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공간인 교실이나 교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소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학교 내 청소년들의 행동과 태도가 학생들 가운데 존재하는 권력 기제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만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은밀히 진행되는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본 척도의 예측력은 비교적 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이 발굴되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척도 문항들 중 일부 문항(예, “나는 힘이 센 편이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가 남녀 집단에서 동일한 요인구조 특성을 유지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희경·민경희, 1998, “지역사회 권력자의 권력 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2: 757-786.
 경향신문, 2009, “점점 교묘해지는 학교폭력-SBS ‘뉴스추적’, 2009년 10월 28일.
 김길임·심희옥, 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아동학회지』, 23(5): 139-151.
 김대균, 2013, “관계적 폭력과 소수자 배려윤리-학교폭력문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32: 79-96.
 김병찬, 2013, “초등학교 학생들의 권력 형성 모습: 새봄초등학교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혜, 2012,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교육』, 21(3): 5-17.
 김영국·한상현, 2008, “거래비용 경제학(TCE)의 적용에 의한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의도 분석: 구매고객과 잠재고객의 모형비교를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32(1): 251-282.
 문수백, 2010,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배병렬, 2009, 『(Amos 17.0)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사.
 서용석, 1995, “Michael Mann의 역사사회학”, 『고려사회학논집』, 9: 3-42.

19) ① 가해자, ② 조력자, ③ 강화자, ④ 방어자, ⑤ 방관자, ⑥ 피해자.

- 송민경, 2009,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를 통해서 본 학교폭력 현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효 역, 2003, 『권력』, Russell, B., 1938, *power: A New Social Analysis*, 서울: 주식회사 열린책들.
- 엄명용·송민경, 2011,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63(1): 241-266.
- 이태숙·김철원, 2008, “컨벤션 개최지의 브랜드 개성 척도 개발”, 『관광학 연구』, 32(2): 171-19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위풍당당 무지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국일보, 2011, “[김태형의 신조어로 본 한국, 한국인] <11> 뺱서들”, 2011년 05월 10일.
- 한영선, 2012,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 의한 피해학생 선택에 관한 연구-심층인터뷰에 의한 질적 연구”, 『한국범죄학』, 6(1): 131-164.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Browne, M. W., and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edited by K. A. Bollen, CA: SAGE Publications.
- Duncan, R., 1999, “Maltreatment by parents and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bully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Maltreatment*, 19: 45-56.
- French, J. R. P., and Raven, B., 1959,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Studies in social power*, edited by D. Cartwright,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Gerbing, D. W., and Hamilton, J. G., 1996, “Viability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s a precursor to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1): 62-72.
- Guerra, N. G., Williams, K. R., and Sadek, S., 2011, “Understanding Bullying and Victimizat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ixed Methods Study”, *Child Development*, 82(1): 295-310.
- Horton, P., 2011, “School bullying and social and moral orders”, *Children & Society*, 25: 268-277.
- Klein, J., 2006, “Cultural capital and high school bullies-How social inequality impacts school violence”, *Men and Masculinities*, 9(1): 53-75.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m, D. O. B., and Liu, A. W. H., 2007, “The path through bullying-a process model from the inside story of bullies in hong kong secondary school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4(1): 53-75.
- McClelland, D. C., 1975, *Power: The inner experience*, New York: Irvington.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and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 2094-2100.
- Olweus, D., and Limber, S. P., 2010, “Bullying in school: Evalu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0(1): 124-134.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MA: Balckwell Publishers.
- Ping, R. A., 2004, “On assuring valid measures for theoretical models using survey dat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2): 125-141.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and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ijtsema, J. J., Veenstra, R., Lindenberg, S., and Salmivalli, C., 2009, "Empirical test of bullies' status goals: Assessing direct goals, aggression, and prestige", *Aggressive Behavior*, 35: 57-67.
- Vaillancourt, T., Hymel, S., and McDougall, P., 2003, "Bullying is power: Implications for school-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19(2): 157-176.
- Walton, G., 2005, "'Bullying widespread' : A critical analysis of research and public discourse on bullying", *Journal of School Violence*, 4(1): 91-1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wo Measures (power controllability, power desirability) for Identifying Power Relationships Among the School Youth

Um, Myungyong

(Sungkyunkwan University)

Song, Minkyu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nd validating two standardized measures, 'power controllability', and 'power desirability', which can be utilized to categorize power relationships among the school youth. In order to identify initial items for the measures researchers conducted individual as well as focus group interview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chool teachers and other school related professionals involved in ensuring both the face validity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initial items. For the finally selected items bot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have been executed with the sample of 1,822 students atten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Korea. To test the validity of the confirmed factor structure of the measures the new sample of 348 middle school students were employed from the metropolitan area. Both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calculated from the validity test sample. Based on the two developed measures 4 types of power relationship were identified among the students. The four types of power relationship turned out to predict well the roles that students take in the field of school violence.

Key words: power relationships among school youths, roles in school violence, power controllability, power desirability, development of measures

[논문 접수일 : 14. 02. 27, 심사일 : 14. 03. 25, 게재 확정일 : 14. 05. 16]

<부록>

학교 청소년 권력관계 유형 검사

1. 본 설문지는 학교 내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 유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문항을 읽은 후,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세요.
3. 다 표시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점수를 더하세요.
(권력장악가능성 : 1~13번 문항, 권력장악욕구: 14~27번 문항)
4. <그림 1>에 따라 유형화. 5. 아래 <부록 표 1>의 내용에 따라 예측.

연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싸움을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힘이 센 편이다	1	2	3	4	5
3	아이들은 나를 편안하게 대한다	1	2	3	4	5
4	나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1	2	3	4	5
5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6	나에게는 '노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7	나에게는 '노는 선배, 노는 오빠, 노는 형' 같은 '뒷백'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다	1	2	3	4	5
9	나는 말을 잘하는 편이다	1	2	3	4	5
10	나는 호감 가는 외모를 가졌다	1	2	3	4	5
11	나는 선생님에게 예뻐를 받는다	1	2	3	4	5
12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이다	1	2	3	4	5
13	나는 '노는 아이(담배피고 술 마시고 등의 행동을 함)'이다	1	2	3	4	5
14	나보다 힘이 약한 아이는 괴롭혀도 된다	1	2	3	4	5
15	'노는 아이'들이 말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6	아이들이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주면 기분이 좋다	1	2	3	4	5
17	나를 따라주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느껴진다	1	2	3	4	5
18	다른 아이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내 기분은 암울할 것이다	1	2	3	4	5
19	권력이 있는 아이와 같이 다니면 나의 힘(권력)도 커질 것이다	1	2	3	4	5
20	권력이 있는 아이와 같이 다니면 아이들이 나를 건들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21	아이들 사이에서 힘(권력)을 가지려면 신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1	2	3	4	5
22	친구가 싸움을 하면 같이 싸워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1	2	3	4	5
23	나는 혼자일 때보다 나를 지지해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아이를 더 괴롭힌다	1	2	3	4	5
24	힘 있는 집단원이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1	2	3	4	5
25	힘이 세지거나 싸움을 잘 하고 싶어서 운동을 배우거나 다른 방법의 노력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6	나는 마치 힘(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본 적이 있다	1	2	3	4	5
27	힘(권력) 있는 아이와 같이 어울리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있다	1	2	3	4	5

<부록 표 1>

지배자	가해자, 조력자, 강화자, 또는 방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실력자	가해자, 조력자, 강화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추종자/은둔자	피해자나 방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가해자: 적극적으로 괴롭힘 행동을 이끌어 가는 사람	방어자: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방관자: 학교폭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 피해자: 학교폭력에서 희생당하는 사람	
조력자: 가해자의 추종자로서 가해자를 도와주는 사람		
강화자: 가해자의 행동을 격려해주는 사람		

구로키 야스히로(黒木保博)

일본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 사회학부 및 사회학연구과 교수. 주요 관심 영역으로 그룹워크 전문기술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들 수 있고,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최근에는 사회복지 원조기술, 사회복지사상에까지 관심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E-mail : ykuroki@mail.doshisha.ac.jp

이광모

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최근 주요논문과 저서로 “조선시대 흡연문화의 형성과정 연구: 국가권력의 역할을 중심으로”(『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1(1), 2013),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에 관한 유교적 관점: 『주역』, ‘괘(卦)·‘효(爻)’의 관계구조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45(3), 2011),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한국공공관리학보』, 24(3), 2010 공저), 『장애인복지정책론』, (이야기담,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돌봄/죽음 등임.

E-mail: lkm@songho.ac.kr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한국가족복지학』, 42, 2013),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사회복지연구』, 44(2), 2013, 공저),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연구”(『한국가족복지학』, 40, 2013, 공저), “이혼위기 부부의 통합적 부부치료 사례연구”(『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012, 공저),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한국사회복지학』, 63(1), 2011), “재미한인교포의 이혼 후 재혼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2(2), 2010, 공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용 비모수통계』, (집문당, 2007),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5,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강점관점 실천, 구성주의 사회복지실천 등임.

E-mail: myum@skku.edu

송민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 주요 논문으로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한국사회복지학』, 63(1), 2011, 공저)가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학교폭력과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연구, 질적 연구임.

E-mail: buta79@naver.com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사회적기업 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경향분석”(『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 (1), 2013, 공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업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 (4), 2012) 공저, “조직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4 (3), 2012, 공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사회복지행정, 지역 사회복지, 사회적기업임.

E-mail: sangmicho@ewha.ac.kr

김진숙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박사. 최근의 주요논문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지역상생 발전전략”(『KBR』, 18 (2), 2014, 공저), “사회적기업 정책 특성 비교분석 연구”(『사회복지정책학회보』, 38 (2), 2011) 공저, “공공부문 부패수준 개선국가와 우리나라 부패방지 정책 특성 비교분석”(『한국부패학회보』, 15 (2), 2010,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인적자원관리, 행정부패, 사회적기업, CSR, 보건의료정책임.

E-mail: philiakjs@gmail.com